

17
표지 설명 : 에루살렘의 '바위의 돔'(이슬람교 사원) 윌리엄 프로이드 홀드만 촬영

9

44

성도의 벗 6 차 례

198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러

십이사도 평의회

에зра 테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콩키
엘 롬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오크스

교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던
렉스 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해류와 가족의 영향력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단.....	1
올바른 상을 심어줌	세리 존슨	8
질 의 응답		15
결혼에 관하여		
경전에 있는 대로 행하였더니	스펜서 제이 콘디	20
똑같은 오리는 없다	앤 앤 매드슨	26
생명선	엘리자베스 스월리	31
비관하지 말라	캐롤 린 피어슨	35
스티브의 승디	캐롤 앤 프린스	40
심심풀이	로버타 엘 페어럴	42
친구가 친구에게		43
말없는 친구	지인 더블류 피트맨	47
지역 성도의 간증	김 산 형제(북 스테이크 축복사)	50
지역 소식		51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년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 226호, 제 20권 제 6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4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60KO PRINTED IN KOREA 6/84

© 1984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International Magazine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나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경축하며, 기적의 인자이며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소경에게 앞을 보게 하셨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기적에 견줄 만한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힘이 고동치는 세계, 제트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뿜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허세는 시이저 시대, 정기스칸 시대, 나폴레옹 시대 및 히틀러 시대의 비극을 만들어 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세상에 살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마을의 마굿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나사렛의 목수로 자라난 소년이,
정복당하고 억압된 국가의 한 국민이,
반경 240킬로미터의 범위를 넘어선 곳에 발을 디어 본 적이 없고, 학교 학위를 받은 적도 없으며, 큰 연단에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집을 가져 본 적도 없으며 도보로 여행하며 전대를 가지신 적이 없

는 한 사람이,

실제로 천지와 그 안의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며, 그의 이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며,

그가 다른 누구도 행한 적이 없는 영원하고 거룩한 것들에 관한 빛과 지식을 가져다 주시리라는 것과,

그의 가르침이 수백만 사람들의 개인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치 체제 및 교육과 문화를 육성하는 사회 정의에 영향을 주시리라는 것과

핀적할 수 없는 그의 모범이 온 세상의 선과 평화를 위한 가장 위대한 힘이 되리라는 등의 사실입니다.

나는 2천 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제기했던 질문을 다시 묻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마 27:22) 진실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계속해서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할 것

이며 어떻게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몇 가지를 제시해도 좋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주는 것의 모범이 되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주셨으며 그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는 것 없이는 참된 기독교 정신이 없으며 회생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아이 다호주의 어떤 스테이크 대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곳의 한 가족이 그때 막 그들의 집에 꼭 필요한 방을 한 개 더 늘리기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3~4일 후에 그 아버지가 계약했던 건축업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해도 괜찮겠습니까? 감독님이 어젯밤 저의 아들 존과 선교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방을 늘리는 것을 좀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그 건축업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드님은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것이며 귀환할 때에는 필요한 방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복음을 가르치러 보내는 가족과 그 가족의 문제를 도와 주러 오는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주는 것, 본연의 자신을 주는 것, 궁핍한 자를 돕고 그분의 영원한 진리의 대업을 펼치는 일에 있어 가슴과 마음과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정신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심. 나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요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

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한복음 1:1-4)

여기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푸른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르는 장대한 산맥을 보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태평양의 어떤 섬의 모래밭에 서서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새벽과 분홍빛, 흰빛, 자주빛의 구름에 둘러싸인 황금색의 공같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밝은 눈과 아무 죄 없이 사랑과 신뢰심으로 가득 찬 사랑스러운 어린이를 보고 창조의 장엄함과 기적의 경이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지구는 그가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를 추하게 만들면 그분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창조주가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독하면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시다가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 대속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불사 불멸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망은 오지만 사망은 그 쏘는 것을 잃었으며 무덤도 그 승리를 잃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로버트 티 배넷 그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 : 25-26)

나는 그의 인생이 희망과 약속으로 밝게 빛났던 한 젊은이의 관 앞에 섰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운동 선수였으며 우수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그와 그의 동반자가 고속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경계선을 넘어 그들이 탄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는 한 시간 후에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나는 연단에 서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동안 그 전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젊은이의 관을 가로질러 바라보

면서 이 젊은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영원한 성역 안에서 단지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갔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알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명백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 서리”(엡 11 : 43)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생활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예지와 진선미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생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과 사랑과 무엇보다도 용서의 모범이 되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그분의 가르침과 필적할 수 없는 모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실로 얼마나 불쌍해지겠습니까. 원뿔을 대는 것, 십리를 동행해 주는 것, 탕자가 돌아오는 것과 그 이외에 수많은 비할 수 없이 훌륭한 가르침에서 오는 교훈이 온 세대를 내려오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한 많은 비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친절과 자비를 끌어내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는 잔학 행위가 통치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곳에서는 친절과 관용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으시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교성 64:9)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주심. 나는 수년 전에 유럽에서 큰 도시의 도로에 뱅크가 다니며, 학생들이 기관총으로 살해당하던 때에 유럽에 가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해 12월에 스위스 베른의 기차 정거장에서 있었습니다. 아침 11시가 되었을 때 스위스의 모든 교회의 종ی 울리기 시작했으며 종소리가 그치지 않고 모든 차량... 고속 도로의 자동차, 버스, 기차까지 모두 정지했습니다. 그 거대한 굴로 만들어진 기차 정거장이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정문을 통해서 광장을 내다보았습니다. 맞은편의 호텔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가설 축조물 위에 모자를 벗고 서 있었습니다. 자전거도 모두 섰습니다.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차에서 내려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3분 동안 묵념한 다음 트럭의 대행렬이 식량, 의복, 의약품 등의 보급품을 싣고 제네바, 베른, 바젤, 쥐리히로부터 동구 공산국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피난민에 대하여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12월 아침에 그곳에 서서 한국가에서 학생들을 쫓아 죽이는 압제 정권과 또 다른 국가에서 기도와 경외심으로 머리를 숙이고는 도움과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일하러 가는 기독교인들의 정신 사이의 기적과 같은 그 대조를 보고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태복음 25:35-36)

예수님은 축하하기 위한 상징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약의 여호와이시며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인류의 구속주이시며 왕 중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나는 이 말일에 인류가 좀더 많은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을 받는 것을 영원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필적할 수 없는 그의 복음 진리를 온전히 재확인해 주신 것과 또한

그가 복천년이 시작되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비하여 인류가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신권과 교회를,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나는 우리 말일성도가 한 백성으로서 그의 존재하심과 실재하심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확실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성 76 : 22-24)

이것이 전 인류에 대한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며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더 큰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에 관해서 공부하십시오.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그것은 경전이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애와 사명의 기록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의 모범을 따르고 가르침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간증합니다. 아멘.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우리 생활에서 뱉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 그리스도께서는 주는 것의 모범이 되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주셨으며 그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는 것 없이는 참된 기독교 정신이 없으며 희생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3.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4.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이 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5. 그리스도께서 동정과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모범이 되심.

6. 우리 말일성도는 한 백성으로서 그의 존재하심과 실재하심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위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지도를 받습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구세주와 구세주의 생애의 의미에 관한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가족이 그들의 느낌을 함께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

계보 및 신전 사업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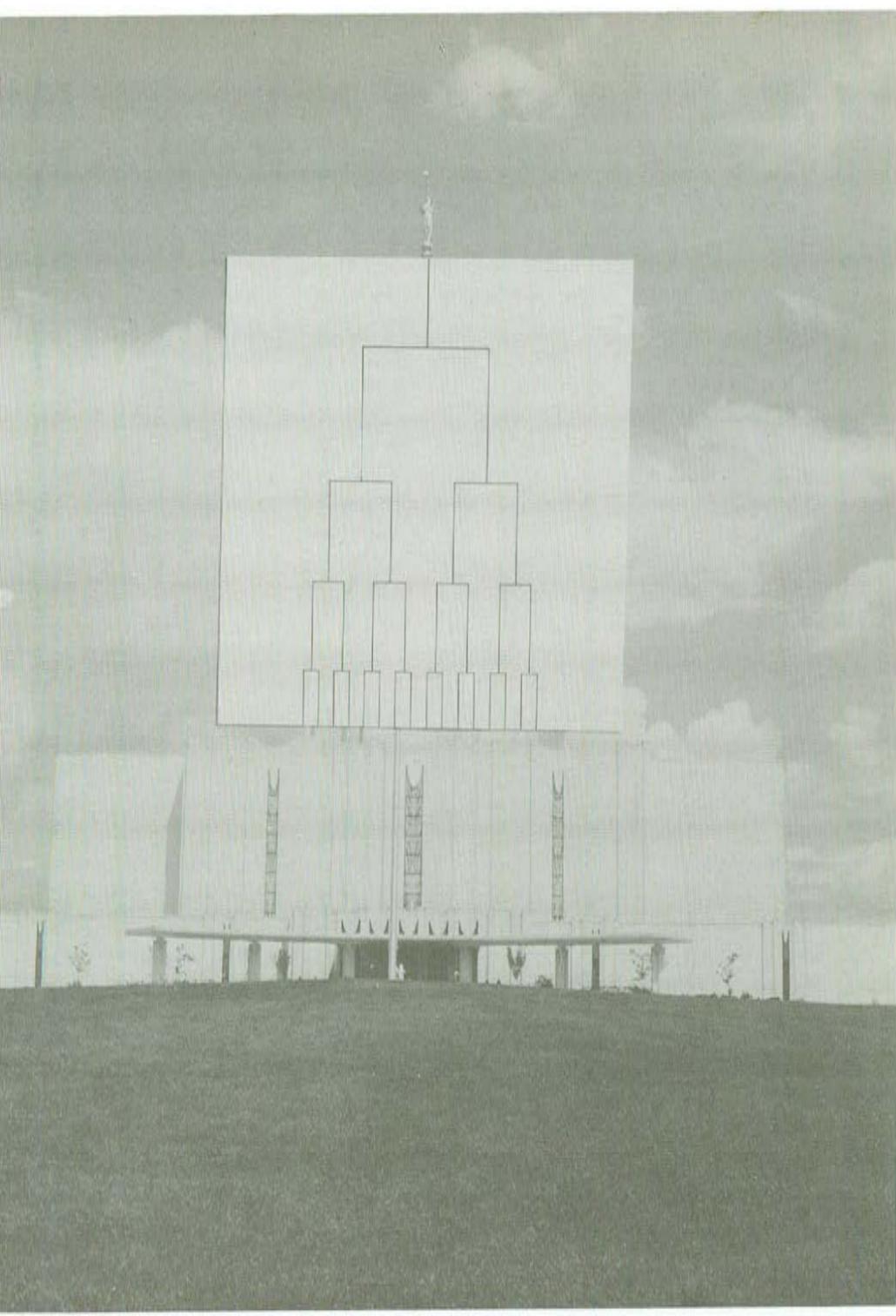
조지 디 듀런트

나는 최근에 현재 계보과 집행 관리자
로 봉사하시는 철십인 제일 정원회
의 로이든 지 메릭 장로님과 토론하는 가
운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계보 사업
과 신전 사업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
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되지요.”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 그 중에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죽은
자의 구속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돕
기 위하여 주신 신성한 계율에 있어서 분
리할 수 없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자신
의 가족을 알아내는 과정은 말일성도에
게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
니다. 영원한 견지에서 볼 때 그 짝인 신
전 사업을 생각하지 않고 계보 사업만 생
각하거나 계보 사업은 생각하지 않고 신
전 사업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반으로 잘
라진 공을 가지고 게임을 하려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전 사업이 그 본질상
더 중요한 사업으로서 신성한 절반 또는
공의 상단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
나 구르는 공에는 상하가 없습니다. 나
는 일부 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을 들었습니다. “저는 신전에 가서 기록
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러나 계보 사업은 흥미가 없어요.” 또 어
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
다면, 제 시간을 몽땅 계보 사업에 쓰겠
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계보
도서관이 문을 열 때부터 밤에 나가라고
할 때까지 거기에 있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신전
에 거대한 이름 창고를 갖게 되거나 신전
에는 없는 이름을 기다리며 긴 줄을 서며
있게 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 두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보 사업에 대해서
큰 존경심을 갖지 않고서는 신전 의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계보 사업은 신전을 위한 근본 사업입니다. 계보 프로그램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신전을 열어 둘 수 없습니다.” (기록한 신전,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레프트사, 1980년 224페이지.)

패커 장로님은 1975년 10월에 지역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수많은 대제사 그룹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듣기만 했습니다. 저는 대제사 위원회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왜 안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재미 있는 조사였습니다.

“저는 잘 교육받고, 수입이 좋으며 또 은퇴한 사람이 많은 39명의 회원이 있는 어떤 대제사 그룹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신전에서 1122건의 엔다우먼트 의식을 행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가족 기록에서 행한 자신의 계보 탐구로부터 겨우 2사람의 이름을 제출했으며 그나마도 1사람은 아직 신전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형적인 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의 계보 사업은 대부분이 거기에 큰 흥미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서 큰 즐거움을 찾고 전적으로 거기에 헌신하는 소수의 회원에게 내맡긴 상태로 있습니다.” (기록한 신전)

어떤 사람들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인에게 매일 아침 땅에 내렸던 만나처럼 자기 자신의 노력없이 신전에서 의식을 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든 항상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자기 가족의 이름을 제출해서 신전에

갈 때 자기 자신의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신전에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과 가족이 우리 조상을 위한 신전 의식을 행하도록 지시 하셨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누구나 우리의 돌아가신 조상을 찾고 그들을 위하여 이런 구원 의식을 수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신전에 가는 것’만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신전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자기 조상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온갖 방법을 다 해서 그들을 찾는 한편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신전에 갈 때, 우리는 자기 의무의 일부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돌아가신 자기 친척을 구원하고 성신권의 권능으로 여러 세대를 함께 인봉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전에 가기만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다했다는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에서 몰아 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자기 가족을...구체적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할 책임을 맡기고 계십니다.” (대회 보고, 1976년 4월호)

여러분은 자기 할아버지나 증조부를 위하여 신전에 가는 감동과 흥분을 경험하거나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보

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죽은 조상을 찾고 그들을 위하여 신전에 갈 때 얻는 경험을 교회의 다른 어떤 활동의 분야에서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이 영적으로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사업에 손발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이 사업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세대를 영원히 연결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생활의 잡다한 방해 요소와 우리를 휩싸고 있는 자잘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합당한 우선 순위에 맞춰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훨씬 더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품위와 지혜와 영감과 영성이 여러분의 생활을 에워 싸게 하고 싶으면 스스로 신전 사업과 계보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한 신전, 224-25페이지)

여러분과 가족이 찾고 준비하여 신전으로 이름을 보낸 사람을 위하여 신전에 갈 때 그 신전 사업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의 경험을 안겨 줄 것입니다.

일부 회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의 이름은 다 찾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농담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그런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칠십인제일 정원회의 더블류스 그랜트 뱅거터 장로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계보 사업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들께서는 55년 전에 돌아가신 친척들을 위한 신전 사업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1만 6천 명의 다른 친척들을 더 찾아냈습니다.” (매회 보고, 1982년 4월호)

어떤 이유에서든 계보를 등한시해 온

교회 회원과 새로운 개종자에게는 훌륭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그야말로 무르익어 수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매년 침례받는 약 5만 가족이 돌아가신 4대 조상과 그들의 사망한 자손의 이름만 신전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백 5십만 명이 매년 이 신성한 의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조상의 이름을 스스로 제출해야겠다는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교회에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계보 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것을 모두 제쳐 두면 안되며 또 다른 모든 것을 위하여 계보 사업을 제쳐 두면 안됩니다. 개인과 가족의 노력을 잘 조직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보통 정도의 근면성을 지닌 평범한 가족도 자신의 돌아가신 조상의 이름을 제출하고 의식을 수행하는 일을 충분히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의식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신전에 참석함으로써 심리를 가야 합니다.

매릭 장로가 말씀하신 대로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은 진실로 함께 병행합니다. 그 중 하나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큰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함으로써 우리의 온 영혼을 죽은 자를 위한 영광스러운 구축 사업의 한 부분이 되는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

8자녀의 아버지이며 교회 신전 계보과 책임자인 조지 디 듀런트 형제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마운트 올림퍼스 제3와드 감독이다.

내 사업을 해 다오

테리 린 피셔

남편은 나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기본 군사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같이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그가 가고 없는 6개월 동안 유타주 프로보에 있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2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으며 한번도 집을 방문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나는 매우 행복하지 못한 신부였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마음속에서 들리는 어떤 음성에 의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듣는 동안 고조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잠시 거기에 누워서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당신의 가족을 그에게 인봉시켜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 살고 계셨습니다. 조지 윌키 고조 할아버지는 남북 전쟁과 전쟁 이전의 경제 상태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는 끝내 남북 전쟁에서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숨졌습니다.

나는 그가 자주 헤어져 있는 동안 집에 있는 가족에게 쓴 편지와 가족이 그에게 보낸 편지를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그의 일지도 읽었습니다. 이런 편지와 일지는 그들이 다시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뿐 아니라 가족 상호간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조상은 말일성도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복음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밤중에 윌키 고조 할아버지가 여기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테리 린, 제발 우리 가족을 나에게 인봉시켜 다오. 나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 제발 우리의 신전 사업을 해 다오. 지금 너는 남편과 떨어져 있지. 영원히 떨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렴. 정말 무서운 일이야. 나는 아내와 인봉되고 싶어.” 그리고는 울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음성이 갑자기 사라졌습니

다. 처음에는 내가 상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거기에 누워서 고조 할아버지에 관하여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사업을 해야 하며 시간이 있을 때 그 일을 시작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음성이 다시 돌아와서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일을 즉시 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련된 일을 내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내가 다음날 마음이 흩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세번째 나에게 말씀하셨으며 이번에는 바로 지금, 지금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생기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지만 한밤중에 일어나서 계보 사업에 관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잡다한 서류와 기록을 분류하고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출생, 혼인, 사망 확인 증서를 신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을 때 나는 비로소 다시 잠들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그 6개월 동안 계보에 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사촌과 함께 신전에 갈 수 있었으며 고조 할아버지를 인봉해 드렸습니다. 나는 그 신전에 그들이 임재함을 느꼈던 것을 간증드릴 수 있으며 마침내 그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남편은 줄곧 많은 시간을 집에서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지를 읽음으로써 자주 위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을 올바른 견지에서 보는 데 도움이 되었을



니다. 나는 그들을 매우 가까이 느꼈으며 결코 그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을 안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지중에 나에게 보여 주신 모범은 나에게 영감이 되어 왔으며 또 계속해서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3자녀의 어머니이며 브리감 영 대학교 시간제 학생인 테리 엘 피셔는 브리감 영 대학교 102와드의 초등학교 보좌이다. *

“이것이 내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냐?”

체리 지 울프

어느 날 나의 어머니는—나의 어머니님의 성함은 리니 피 콜드입니다—한 가지 경험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그 이후로 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머니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교회 회원들에게 독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옷을 기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서랍과 옷장에서 버리기에는 너무 좋은 꽤 낡은 옷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는 “이것이 내가 나에게 주려는 것이냐?”라는 음성을 들

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아, 아닙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가장 좋은 의복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음날 인쇄될 워드 신문의 편집장으로 서 즉시 의복을 호소하는 시적인 글을 썼습니다. 독자들은 그 호소문에 크게 감동되었으며 굉장한 호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후하게 주시며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해주시는지 이제는 압니다.

체리 지 울프 자매는 오레곤주 힐즈 보로에서 살고 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엘레인 티스데일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후 우리 가족은(남편, 2살 및 4살된 두 아들, 나) 유타주 스페니쉬 포크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간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초등학교 유아반을 가르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몹시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었으나 교회에서 아무 직책도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적 잘 아는 초등학교 회장(레베카 크리스텐슨 자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유아반을 가르칠 수 없어요. 전에 한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회장은 내가 수줍음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회장은 나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내가 해보기만 하면 그 일을 좋아하리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제안을 반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음주 초등학교에서 내가 이 어린이들을 가르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회장이 떠날 때까지 그가 공과 교재를 의자에 두고 간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 책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책을 펴게 되었고 그 훌륭한 공과를 읽었습니다. 나는 매일 그 책을 돌려주겠다고 자신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초등학교 회장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곧 초등학교 날이 왔습니다. 나는 그 공과를 전하든지 다른 사람을 찾아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번만 이 공과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이 책을 돌려 줄해야.”

나는 그 반을 3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5년 동안 초등학교의 다른 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와드가 2개의 와드로 나뉘어졌을 때 나는 초등학교 회장단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나는 여러 가지 지도자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꿀벌반 지도자, 청년 회장, 와드 상호부조회 보좌 및 회장,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서기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런 부름은 제가 수줍음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었으므로 제가 좀더 온전히 채워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많고 신뢰심이 넘치는 한 지도자가 정말로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부름에 대한 “거절”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레인 티스데일 자매는 지금도 유타주 스페니쉬 포크에 살고 있다. *



우리의 새 회원 친구들에게

로렌 시 던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나는 특별히 이제 막 새로 회원되신 여러분과 곧 교회에 가입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인 새 회원 여러분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국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엨 2 : 19, 20)

여러분이 성령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선택된 자들은 내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29 : 7)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한 땅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언자가 있었으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권속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자기 다른 시간에 이 땅의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 말일에 그의 “흩어진 이스라엘인”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집으로 모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에레미야 23 : 3-4)

이 예언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오시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 목자”의 음성을 들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제 새 회원인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살펴봅시다.

무엇보다도 우선 여러분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한 초기의 니파이인들과 강한 유대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니이 25 : 26)

여러분은 처음부터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침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기에 따르는 성약과 계명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권능있는 자”(신약개조 제5조)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침례 의식을 수행했으므로 자신의 침례가 유효하다는 지식과 확신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 침례를 베푸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교회에 들어오기 위하여 대관장단이 설정한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받은 다음 합당한 사람에 의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도록 준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왕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는 보혜사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는 성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교회의 교리를 가르칠 때 이 신성하고 거룩하게 하는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구체적인 가르침과 계명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참되다는 확인을 받게 하기 위하

여 주님에게 기도하도록 권고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지적했습니다.

“보라……너는 내 마음속으로 깊이 연 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교성 9 : 8)

“참으로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교성 8 : 2)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성 9 : 8)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계시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개종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세에 의하여 그의 영혼이 고침을 받을 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는 자신이 느끼는 방식에 의해서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배나민 백성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찬탄해 지며 죄사함을 받으며 양심에 평안을 얻으니…’(모사 4 : 3)”(대회 보고, 1963년 10월호, 25페이지)

여러분이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은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돌아온 것이 또 있습니다. 성령의 화평과 따뜻함을 받은 것과 함께 더 큰 인내심과 더 많은 이해심과 더 큰 확신과 전에는 자기 능력 밖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할 능력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더 깊은 인식과 자기 주변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이해심과 복음 원리에 대한 더 강한 느낌과 경전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로 작정해야 하겠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신전에 가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신전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결혼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법률이나 성직자에 의해서 “사망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한 부부가 교회의 신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인봉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목적은 그의 모든 자녀가 그의 면전에서 즉 영생으로 돌아갈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가까이 그의 복음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은 영원한 결혼입니다. 신전 인봉이나 결혼이 수행될 때 그것은 가족도 영원할 수 있다는 즉 가족 단위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계획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구세주께서는 복음대로 생활하지만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도 상을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전에서 결혼할 때 따르는 실질적인 축복 한 가지는 여러분이 오늘날 세상에서 매우 드문 특별한 무리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3분의 1이 결혼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전에서 결혼한 사람은 성공률이 90퍼센트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축복에는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약속 뿐 아니라 교회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들을 위한 이 세상에서의 더 나은 결혼 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회원으로서 이제 와드나 지부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처럼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그리스도같은 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교회 회원이 된 지 오래 된 회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최선을 다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이 나쁜 날도 있으며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대개 고의적이 아닙니다. 이런 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거든 인내심을 갖고 그러한 일을 일신상의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은 아주 적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회원들을 더 잘 알게 됨에 따라 대개 그들을 모두 좋아하겠지만 비슷한 배경이나 흥미로 인하여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몇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신뢰하고 싶어하게 될 회원 가운데는 감독이나 지부장 및 담당 가정 복음 교사가 포함될 것입니다. 자매에게는 상호부조회 회장과 방문 교사도 또한 도움을 더 줄 것입니다. 청소년도 특별한 지도자를 갖게 될 것입니다. 회원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로서 서로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아직 그런 직책을 받지 않았다면 곧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신 회원이고 경험이 적지만 자신이 이미 굉장히 훌륭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활력과 신선함이 와드에 새로운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래 된 회원들이 항상 그런 것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아늑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영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간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신성한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종할 때의 기쁨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도 여러분이 이 교회가 활력있고 생기있게 유지되는 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새 회원인 여러분에게는 자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특별한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매우 강하지만 또한 약한 면도 있습니다. 이 간증이 결코 약화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양은 진실된 기도, 정규적인 교회 모임 참석, 십일조를 바치는 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 경전 읽기 등 모든 계명을 지킬 때 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살 때 치유하는 성령의 영향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자신이 새 회원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울 것은 많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들과 똑같은 보상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고용한 어떤 집주인의 비유에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집 주인이 아침에 처음 품꾼들을 고용한 다음에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고용했습니다. 그는 육시와 구시와 십일시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품꾼들이 불평을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매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마 20:13-15)

이 위대한 비유의 한 가지 의미는 주님께서 그의 진리의 지식으로 오는 그의 모든 자녀가 충실하지만 하면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구원과 승영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종시의 회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이 비유는 품꾼들이 언제 그 부름을 들었는지 그 집 주인의 부름을 듣고 즉시 포도원으로 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급료를 주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찍 들었거나 늦게 들었거나 그 부름을 듣고 가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아무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비유는 또한 주님께서 새 회원과 오래 된 회원을 모두 왕국에서 책임있는 위치로 부르실 수 있으며 실제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누구나 특정한 능력과 잠재력이 있으며 계시에 의하여 그들이 가장 적합한 직책을 맡도록 부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회원된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하는 것에 전혀 상관 없이 이런 부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서 배우고 성장하는 가운데 오늘 똑같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전적으로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권 지도자의 인도와 경전의 가르침과 연합하여 이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의 큰 근원 가운데 하나는 오래 된 회원입니다. 교회 회원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새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양을 주고 강화시키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제로서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행 10:34) 우리가 모두 당신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주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한 가지 시현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12-13절)

이것은 모두 유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14절)

그러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위대한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비가 속되다 하지 말라”(15절)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28절)

고대 교회에서는 이때로부터 복음이 유대인 뿐만 아니라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도 똑 같습니다. 신앙과 회개와 침례와 그 뒤를 이은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은 교회에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깨끗하다고 선포하신 그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이 받아들이고 우정을 증진시킵니다. 주님이나 교회 회원이나 문에 들어선 형제나 자매를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엘마도 이런 단합과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누구든지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용하는 자와 더불어 애용하고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헤아림을 받고 영생을 얻기 원할진대…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에 꺼릴 바가 있겠느냐?”(모사 18:8-9, 10)

새 회원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증거는 적절한 연령의 새로운 성인 개종자에게 침례 직후에 아론 신권을 부여하는 교회의 표준 절차와 새 형제 자매에게 그들이 행할 능력을 갖춘 교회내의 직책에 부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 되고 좀더 굳건해진 회원들이 여러분 새 회원이 왕국에 들어오고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개종한 알란 존 누베크 형제는 자기 가족의 최근의 개종과 오래된 회원들이 행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하도록 도와 준 가장 위대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침례받기 전 목요

일 저녁의 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와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안 한 가족이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곧 받게 될 침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문에서 맞아 주었으며 우리의 침례식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로서는 침례탕에 들어가고 위의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대단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그 가족은 교회 모임에서 다른 가족과 함께 우리 옆에 앉음으로써 우리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느낀 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교리를 설명해 주고 우리의 경전 공부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들은 평일과 주말에, 특히 가정의 밤에 우리가 우리와의 우정을 증진했으며 스스로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한 가정의 밤을 계획하는 것을 도와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금식 간증회를 한 다음 그들의 가정에서 모임에 참석하곤 했는데 그들은 교회의 다른 회원들이 우리를 만나도록 거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우리의 동반자이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저는 이런 우정 증진을 통하여 이 교회가 참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소중한 신회받는 회원으로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마 7:15)라고 하셨으며 여러분은 그 문을 들어섰으며 다시 하나님의 면전에서 메려다 줄 여정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고귀한 성신의 은사를 주셨으며 이 은사의 속삭임을 따르면 이 은사가 여러분의 간증을 강하게 유지시켜 주고 진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더 완전하게 주님의 길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세상에 그의 교회와 왕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최막대를 단단히 붙잡”도록 서로 도와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권 지도자 및 같은 성도의 도움과 동반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당신의 수많은 다른 자녀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므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교성 123:12)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보여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모범입니다. 그들이 선과 진리를 느끼고 그리하여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발산되는 영입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훌륭한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여러분의 빛이 밝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온갖 환경에서, 온갖 배경에서 온 새 회원,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배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궁창에서 가장 새로운 별인 여러분에게 우리는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수호 천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슨 일을 합니까?



던 자먼,
슬트레이크
대학교
제2스태이크
부장

이 질문은 3가지 종속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이 3가지 질문의 대답은 곧 큰 질문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 3가지 질문은 (1)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2) 천사들은 성역을 하는 동안 수호 역할을 할 수 있나? (3)각 사람에게 지정된 수호 천사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주님이 그의 사업을 행하시는데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성역을 베푸는 인물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지상에 성역을 베푸는 천사는 모두 “현재 이 세상에 속하고 있거나 속한 적이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교성 130 : 5 참조) 경전에서는 천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적어도 5종류의 인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아담에게 회생의 원리를 가르칠 때의 상황처럼 아직 지상에 온 적이 없는 영들이 있습니다. (모세 5 : 6-8 참조) 천사는 또한 지상에서 의롭게 살다가 죽어

서 부활을 기다리는 영입니다. 이런 인물들은 “완전하게 된 의인”(교성 129 : 3)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사가라와 마리아를 방문한 사가라의 경우가 이런 존재였음을 설명해 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의 산에 나타난 경우처럼 변형된 존재가 천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 17 : 1-3 참조) 사도 요한은 변형되었으며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땅에 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성역을 베풀” (교성 7 : 6)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천사로 봉사하는 4번째 종류의 존재입니다. 모로나리와 침례 요한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것이 이런 유형인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상에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역자로 활동할 때 이따금 천사로 일컬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을 경고하기 위하여 롯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 이 분류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창 19장 참조)

일단 여러 종류의 개체가 천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면 이제 그들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본질적으로 보호 내지 수호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천사들이 진실로 인간을 보호하고 경고하고 강화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애급으로 도망하라고 경고하고(마 2 : 13 참조),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열왕기상 19 : 5-8 참조)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고(사도행전 12 : 17)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보호하고(단 6 : 22) 니파이를 그의 형들로부터 보호하고(니일 3 : 29-31) 아브라함이 회생당하려

할 때 그를 속박에서 풀어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 1:15) 천사가 이용되었읍니다.

존 에이 윗소우 장로는 이 경륜의 시대에 천사의 성역을 통하여 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자주 우리를 사고와 해와 유혹과 죄로부터 수호한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들은 수호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근원으로부터 인도와 보호를 받은 것을 간증했으며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 호머 듀럼, 편집. 증거와 화해, 제3권, 솔트레이크 시티:북크래프트사, 1960년, 402-3페이지)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의로운 가족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읍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이러한 특권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다가 죽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들은 사랑과 경고와 질책과 지시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상에 있는 자기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다시 방문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복음 교리, 396페이지)

혼자 있거나 혹은 여럿이 함께 있으면서 천사가 와 있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천사의 성역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하늘 존재를 볼 눈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외에도 내 앞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

입니다.”(존 에이 윗소우, 브리감 영 설교집,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릿 출판사, 1951년, 42페이지)

천사들은 정말로 보호 내지는 수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와 있는 것이 보여지거나 알려질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도 위로하거나 경고하기 위하여 천사로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 개개인에게 특별히 지명된 수호 천사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것이 경전에는 전혀 없읍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총관리 역원의 저술에도 그 대답은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 에이 윗소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도록 수호 천사가 정해진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성신이 계속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계속해서 동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듀럼, 403페이지)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사람 혹은 모든 의로운 사람에게 그들을 위한 수호자의 역할을 할 하늘에서 온 존재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어야 할 인간을 자비로 돌보시는 방식에 관련하여 제시된 기본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물론 교리,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60년 341페이지)

요약하면 모든 사람에게 지명된 수호 천사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들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수호 역할을 해왔습니다. *

물문경에는 페이지 하단에 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스탠 라슨 형제(성경번역 연구가)

진 정한 의미에서 물문경은 항상 그 자체 연대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3가지 다른 연대 기록 방식이 있습니다. 리하이가 에루살렘을 떠날 때부터의 연대, 판사의 연대, 그리스도의 탄생 이래의 연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날짜를 주전과 주후 연대로 바꾸는 것이 편리합니다. 1888년에 출판된 대형판 물문경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판에서는 연대가 지칭하는 구절의 옆 빈칸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대형판은 연대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06년에 다시 인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920년 판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정된 연대가 페이지 하단에 기록되었으며 이더서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각 페이지에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본문 전체를 통하여 어떤 특정한 지점에만 연대를 삽입하는 대신에 독자가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파이인의 1년은 우리가 4월이라고 하는 달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니삼 8:5) 그러므로 “십 사 년초에”(니삼 2:17)라는 말이 있으면 그 십 사 년은 주후 14년 4월에 시작해서 주후 15년 3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판사 통치 10년은 주전 82년에 시작되지만(앨 8:3) 같은 해의 열째 달은 주전 81년이므로(앨 14:23) 주전 연대에도 똑같은 상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경-이라는 말에 있

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이라는 말은 한 해의 마지막 9개월 기간과 다음 해의 첫 3개월 기간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주전 83년경”이라는 말은 그 연대 전후의 몇 년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이야기한 사건의 시기가 주전 83년 4월부터 주전 82년 3월 사이의 어느 시기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규칙으로는 그 연대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에 관련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을 따르지 않는 예도 있으며 이런 예는 약간 분명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니파이일서 9장 2절부터 5절 사이에는 그 페이지의 연대가 “B.C 600년~B.C 592년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B.C 570년경까지는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니파이일서 12장부터 24장 사이에 있는 “B.C 559년~B.C 545년경”이라는 연대가 있는 이사야 자료는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한 연대나 이런 일이 생긴 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니파이가 그것을 작은 판에 기록한 대략적인 시기를 나타냅니다. 물문의 말씀은 “A.D 385년경”으로 되어 있지만 12절부터 18절 사이에는 B.C 124년에 끝난 베냐민왕의 초기의 통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로나이서 8장과 9장은 물몬이 그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두 통을 나타내며 “A.D 400년~421년경”이라는 연대는 모로나이가 그것을 판에 새긴 대략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는 원래 그 편지가 A.D 385년의 구모라 언덕 전쟁이 있기 전 어느 시기에 씌어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문경 본문은 영감으로 번역된 경전이며 구절 구분, 각 장의 요약, 전후 참조, 연대 등과 같은 것은 현대의 독자를 돕기 위한 보충물입니다. 각 페이지 하



단에 있는 이런 연대가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물론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정도 만큼만 정확하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현대의 연대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산수적인 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니파이이서 5장 28절이 그런 예로써 니파이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 지 삼십 년이 흘러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은 "B.C 600년경"에 예루살렘을 떠났으며 30년 뒤라면 B.C 57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니파이이서 5장 28절의 연대는 "B.C 569년"으로써 1년의 산수 착오가 있습니다. 다른 예는 암몬이 B.C 121년에 그의 백성을 떠났으나(모사 7: 2-3) 현대의 연대에는 그들이 떠나기 1년 전에 립하이와 그의 백성을 구원한 이후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음니

다.(모사 21: 22) 분명히 후자의 사건이 있었던 연대는 최소한 1년은 감해야 할 것입니다. 모사이야서 23장 25절부터 24장 25절 사이에 있는 사건은 적어도 B.C 121년으로 연대를 잡아야 합니다. 엘마를 발견한 군대는 암몬과 립하이를 추격하던 군대였으며(모사 22: 15-16; 23: 30, 35) 엘마서 17장 6절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떠난 연대는 B.C 91년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모사 28: 9) 또한 엘마서 36장 1절부터 43장 2절 사이의 사건은 판사 치세 18년에 일어났으므로 "B.C 74년경"으로 연대를 잡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물론경의 모든 연대는 1920년 판에 대한 책임을 맡은 물론경 위원회가 설정한 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호텔 입구에서의 겸손



프랭크 엘 크레이븐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지만 겸손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수년 전 어느 아침, 호텔 입구에서 겸손을 볼 때까지는 겸손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유타 호텔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쪽진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호텔의 정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아주 흥미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좀 앉아 있자니 입구에 더욱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서두르는 가운데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는 급하게 가면서 서로 짜증스런 눈초리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움직이는 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 호텔 문으로 들어온

분이 정말로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신 80대의 조지 큐모리스 장로님이 문에 손을 뺀치신 채로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감사하다는 뜻의 목례도 없이 급하게 그 문을 지나는 동안의 몇 분간 문을 연 채로 잡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자 그때서야 문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었는데 너무나 바쁘게 가느라고 자신이 누구에게 부딪쳤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한 젊은 여성 때문에 손에 든 모자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는 최소한 6~7분 동안 모리스 장로님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는 입구를 가로질러 길을 가는 동안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길을 비켜 주시면서 동시에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먼저 가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여러 번이나 다른 사람들이 급하게 돌진하는 동



안 완전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가는 길에 들어서면 그는 그들이 옆으로 비켜 설 때까지 또는 그가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지나갈 때까지 참을성있게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때 그 입구에서 모리스 장로님보다 더 바쁜 일정이 있거나 마음이 더 급한 사람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때부터 늘(조그만치라도 삶에 충실하다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도를 위하여 옆으로 비켜 서는 것이 훨씬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일에 열중하다 보면 친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의 목적과 필요 사항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겸손의 참된 표적을 잇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호텔 현관에서 겸손을 본 이후로 작은 친절의 행위를 보이는 사람에게 늘 더 깊은 감사를 드려 왔습니다. *



우리가 저마다의 일에
열중하다 보면

친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의 목적과

필요 사항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겸손의 참된 표적을

잇을 때가 많습니다.



승리승리승리승리승리승리승

케이트 에드워즈

육체적인 결함과 배우는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만15세의 빌리는 우리 정원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침례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학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스카우트 활동은 실질적이 못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 교사 정원회 고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 빌리가 출석부에 올라간다면 최소한 활동에 포함은 되어야 합니다.” 윌슨 형제님이 처음으로 접촉을 했는데 그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빌리는 정말로 오고 싶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과하는 음성으로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몇 개월간 봄, 여름 동안 빌리는 뮤추얼 활동에 모두 참석했으며 우리는 그와 친분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일부 소년들은 빌리를 알지 못했고 그가 서투르고 어색하게 행동한다고 비판했으나 빌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원한다고 느꼈으며 우리 고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리가 열 여섯 살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잊혀졌으나, 그것은 우리를 중 몇몇이 16세 생일을 맞아, 제사가 될 때까지 그를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빌리를 기억하여, 그를 우리의 정원회 활

동에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주변에 있자 빌리는 다시금 더욱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배구 시합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테이크 내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스테이크 우승 문턱까지 갔으며 금년은 우리가 기어이 이기려고 하는 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많은 “상급생”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장도 크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운의 마스코트인 빌리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빌리가 같이 배구를 하게까지 했습니다. 공을 치는 것만 해도 중요한 달성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그를 격려해 주었으므로 빌리는 정말로 자신이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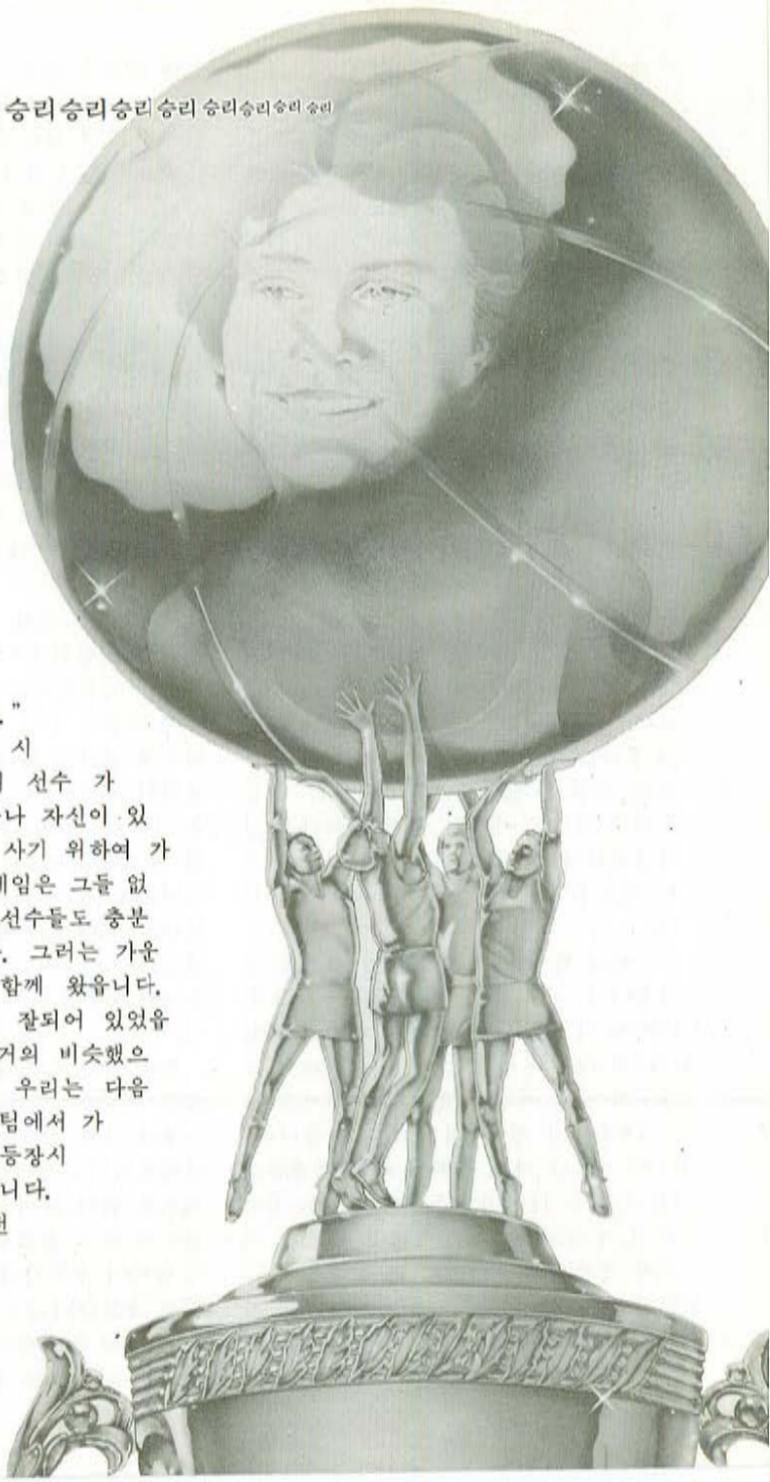
시합 때마다 함께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배구 시합 시즌 동안 빌리는 우리 팀에게 몇 점을 잃게 하고, 한 시리즈에서는 한 게임까지 지게 했으나 그는 배구를 했으며 우리는 모두 우리의 희생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뻐합니다.

마침내 스테이크 우승을 건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팀은 지난 2년 동안 적수가 되었던 바로 그 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차례입니다. 우리는 정규 시즌 시합 동안 그 팀을 물리쳤

승리승리승리승리승리승리승리승리승리승리승리승리승리

으며 그들을
참피언 결정전
에서도 무찌
를 것입니다.
아마도 좀더 용
의 주도하게 하
느라고 더욱 신
경을 쓰는 가운데
오히려 빌리에게 그
시합에 관하여 말하
는 것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합 시
간이 되었을 때 우리 선수 가
운데 몇 사람은 너무나 자신이 있
었으므로 마실 것을 사기 위하여 가
게에 갔읍니다. 첫 게임은 그들 없
이 시작했으나 후보 선수들도 충분
히 잘 해 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
데 감독님이 빌리와 함께 왔읍니다.
양쪽 팀 모두 혼란이 잘되어 있었읍
니다. 그 시합은 거의 비슷했으
나 우리가 졌읍니다. 우리는 다음
시합을 위하여 우리 팀에서 가
장 잘하는 선수들을 등장시
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합의 3전
가운데 2승을 할
기회를 얻기 위
하여 다음 시합을



이겨야 했습니다.

빌리는 첫 게임 내내 코우치의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입니까? 지금 뭘까요? 제가 지금 뛰기 원하십니까?” 그의 주장은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코우치는 확고하면서도 친절하게 “가서 앉아 있어라 빌리, 때가 되면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게임이 끝나자 빌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점수는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우치는 빌리를 쳐다보았으며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소년을 시합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규칙을 바꿀까요? 그 원리가 시합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 소년들은 독특한 소년 단체였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그 코우치는 모든 코우치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어느때가는 우리같은 팀의 소년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칙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그는 빌리를 시합에서 뛰게 해야 했습니다.

상대편 팀이 바로 빌리에게 서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리에게……또 빌리에게 서브를 넣었습니다. 계속해서 빌리에게 서브가 날아왔습니다. 상대편 코우치가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서브를 넣는 선수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서브가 바로 빌리에게 날아왔습니다. 점수는 11대 0이였으며 서브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서브가 네트에 걸렸으나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마지막 점수는 15대 6이였습니다. 우리가 이길 해였는데 우리는 졌습니다.

상대편 팀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배구 코

트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참느라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으며 코우치가 말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무엇이 올바른지 안다고 생각했다.” 그도 평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이 시합에 참여하게 해 왔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기를 바란다.” 거기에 감독님이 빌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았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빌리가 침묵을 깨고는 “어쨌든 우리는 다른 것을 이겼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감독님이 신권회에서 이기는 것에 관하여 공과를 하셨습니다. 그는 지체가 부자유스런 아들이 우리 정원회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신전에 가게 된 비활동 아버지에게 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가 배구를 할 수 있다면 신권회에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갑자기 빌리가 정말로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배구 우승을 그에게 투자했으며 그는 우리에게 중요해졌습니다.

농구 시합 시즌이 닥쳐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가 농구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들은 그가 공을 농구 코트로 뛰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팀이 그의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는 실로 여러 가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스테이크 우승을 가리는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 내의 다른 팀들을 훌륭하게 물리치고 결승전은 우리와 배구 결승전에서 시합했던 바로 그 팀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시합의 전반전이 거의 끝날 무렵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코우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3번째 쿼터가 되었을 때 그날 밤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하여 작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배구에서 우리에게 이긴 바로 그 선수들에게 빗을 짊을 길을 우리가 찾고 있는 동안 농구 코트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리가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슛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팔과 손이 가늘기 때문에 공의 방향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편 코우치가 고향을 질러서 누군가가 빌리에게 반칙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우리 감독님은 미소를 띠고 있을까요? 그때 상대편 선수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빌리를 쳤습니다. 심판이 호각을 불었으며 그제서야 모든 사람이, 나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빌리는 자유투를 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2개의 자유투(고의적인 반칙으로 인한)를 가졌으며 그가 넣지 못할 때는 상대편 팀 소년 한 사람이 경계선 위를 밟고서는 반칙을 해서 빌리는 다시 여러 번 더 슛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중은 빌리를 위하여 박수치고 응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응원했으며 상대편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지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점수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

두 빌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양 팀 모두 빌리를 돕고,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빌리는 그날 밤 자유투를 수없이 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응원했습니다. 우리는 흐뭇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그날 밤 스타가 되어 집으로 갔습니다. 누가 이것을 믿습니까? 그들이 이기고 우리가 이기고 스테이크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잊을 때 점수는 사람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똑같은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대편 팀의 선수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정말로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한, 시합에 지는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해에 계속해서 탐험대 스카우트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우리는 배구와 농구와 같은 단체 경기를 했으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는 우리가 빌리에게 투자한 것이 있었으며 우리가 다른 팀에게, 또는 빌리가 다른 팀에게 승리란 우리 감독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격을 도야할 때에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빌리의 성품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독님은 빌리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다른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모두 그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나는 대관장이 되기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집회를 갖기 위하여 남미의 여러 국가를 방문하라는 지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국가와 국가의 관리와 언론으로부터 훌륭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신문 가운데 하나의 대표가 한 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하루 전인 일요일에 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나는 복음 회복에 관하여 좀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여자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말씀을 하지시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그렇지 않았지요?”

나는 그 여자가 농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시 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그녀가 미소지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미소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였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나는 남미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의 신문의 부활절 판에서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저자는 여러 학위를 소유하고 그것을 이름 옆에 열거한 어떤 성직자였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모두 읽었으나 그는 하늘과 땅의 주님, 구속주, 구세주라는 말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 이상의 존재인 나사렛 예수를 언급한 성구를 두어 개 인용했으나 그의 글에서 그를 위하여 귀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에게 다른 이름을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여행을 하는 중에 나는 한 모임에 참석한 400명의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그가 주장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젊은이들로부터 400가지 영감에 찬 간증……확실한 간증과 확신으로 가득 찬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는 바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1-2)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정말로 부활절을 경축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악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한번은 악마가 소리치며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라.”(눅 4:41). 또 한 번은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행 19:15)라고 말했습니다. 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마 8:29)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에는 상당한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구세주를 풀어 주려 했으나 정치적인 야심과 다른 이유로 인하여 그의 아내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박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는 십자가 상단에 히브리어, 희랍어, 라틴어의 3언어로 이 유명한 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요 19:19-22 참조)

여러분은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에 관하여 읽으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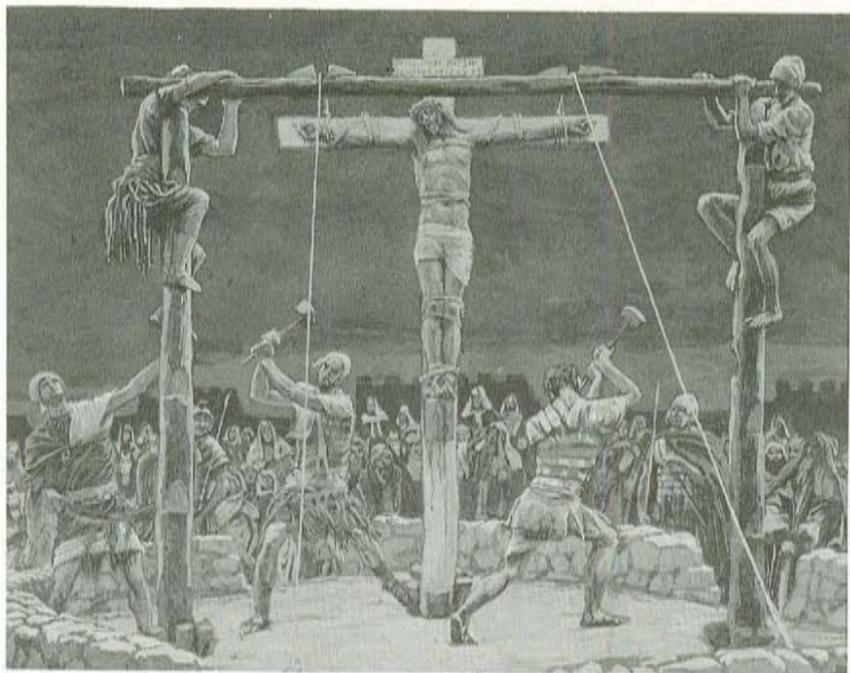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 1:49)

바울은 변화되자마자 그의 특이한 경험으로부터 시력을 다시 찾자 즉시 각 회당으로 가서 그리스도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행 9:20) 전하였읍니다.

왜 성직자들은 예수라고만 부르기로 작정하고 다른 거룩한 이름으로 부를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합니까? 세상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스페인어를 쓰는 모든 국가에서는 어디에서든지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스페인어로 헤서스라고 발음하지만 이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빛의 왕자,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는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서 두 분을 보았으며 그들이 정말로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박해하고 헐뜯고 온갖 거짓된 말로 나를 대적하여 이야기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하나? 나는 정말로 시현을 보았는데, 그리고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나. 또 왜 이 세상은 내가 실제로 본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 나는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감히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슬리게 되고 정죄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요셉 스타미스—교회 정사 1 : 25)

여러분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대답하자 주님이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마음을 깨우는 것 같은 기대와 호기심에 찬 주님의 눈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온 대답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고 마음에 벽찬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라”(마 16 : 13-17 참조)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것을 너에게 말해 준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셨나니 위대한 계시가 너에게 왔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400명의 선교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남녀 노소가 직면하는 주님의 질문을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그 수백 명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간증이니 예수는 진실로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눅 2 : 28-30) *

“나는 오늘 주께서 걸으신 곳을 걸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

대관장께서 1972년 성지 방문에 관한 이 기사를 쓸 때는
대관장단 제1보좌이시었다. 리 대관장은 1972년 7월부터
1973년 12월에 사망할 때까지 교회 대관장으로 봉사하셨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3일 동안 거룩한 땅을 걸었으며 이 세상에 살았던 분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감화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땅에 가까이 가는 동안 함께 4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을 떠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역사적인 장소에 관하여 안내자가 말하는 것에 귀를 막게 해주시고 영적인 느낌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느낌으로 그 거룩한 장소가 어딘지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드렸습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처음 음악으로 표현된 그 아름답고 거룩한 구절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주께서 걸으신 곳을 걸었다.”

훌륭한 안내자와 함께 렌트카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벽 도시에서 약 9킬로미터 떨어진 유대의 언덕 사이에 있는 베들레헴 마을로 가는 동안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훌륭한 성탄절 찬송가의 구절을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 베들레렘 작은 골 너 잠들었으나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친 줄 네 어찌 모르냐”

(찬송가 124장)

우리 왼편 저쪽에는 목자의 들이 있습니다. 약 2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직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언덕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목자의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8-11)

현재 우리는 초기 교회의 지하실에 바



동산 무덤(엘던 케이 런조우른 촬영)

위를 짊어 낸 동굴의 입구에 목자와 함께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이 장소가 정말로 거룩하게 된 지점이라는 어떤 영적인 확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밑의 지하실에 바위를 짊어 낸 동굴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스러운 장소를 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려나무의 도시인 여리고 바깥에서 우리는 용감한 침례 요한이 인자에게 침례를 베푼 요단강 북에서 다시 훌륭한 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신성한 사건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6-17)

우리는 성벽 도시 예루살렘에서 약 5킬로미터 가량 차를 타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오두막집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대문 안에서 수많은 자만심에 가득 찬 유대인 사이에 있을 때보다 더 친근한 동반자들을 찾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위로 만든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입구에 서서 구세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마르다에게 자신의 위대한 사명의 중요한 의미를 선포하실 때 일어난 그 극적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마르다의 열렬한 간증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여 그러하되다 주

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 11:25-27)

우리는 마음속으로 나사로를 일으키는 기적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며칠 동안 묻혀 있던 배움으로 잠깐 나사로의 모습을 무덤 입구를 통하여 보시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요 11:43) 사망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가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산꼭대기였으며 군중이 그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동안 그분의 곁에서 있던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군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우리는 이 장소의 거룩한 땅과 또한 갓세마네를 산책했습니다. 이 몹시 영적인 장소인 갓세마네 동산에는 82루의 높고 마디가 울퉁불퉁하게 나온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지점 근처에서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혹심한 고통 가운데 고뇌에 찬 그의 음성울 다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계시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교성 19:18)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



감람산(린 엠 힐튼 촬영)

그리스도께서 동정과 사랑과 무엇보다도 용서의 모범이 되심.

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 : 39)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조롱하는 재판에 의해서 주님이 매를 맞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재판장이라고 알려진 곳을 통하여 안내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에 처한 장소와 거룩한 무덤이 있는 장소로 가는 길이라는 십자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모두 실제의 장소와 틀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느꼈던 그런 영적인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형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을 받으셨느니라”(히 13 : 12)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예루살렘 정문 안이 아니라 밖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내인들은 그의 십자가형이 성벽 안에서 행해졌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십자가형에 처하고 무덤에 안치한 장소에 대한 요한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요 19 : 41-42)

우리가 방문해야 할 곳이 하나 더 있었

는데 그것은 동산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라비아파(천주교의 일종)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내인은 늦게야 생각이 났다는 듯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였으며 어린 아들과 함께 온 여자 안내인이 우리를 그 동산으로 안내하는 동안 성벽 도시 예루살렘의 문밖에 있는 언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벽내의 재판정이 있던 곳에서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동산은 요한이 말한 대로 “언덕” 바로 옆에 또는 그 안에 있었으며 그 안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류 기술자를 쓸 경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서 있는 동안 무엇인가가 이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었으며 우리는 거기에서 벌어진 극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무덤에는 구르는 돌로 막을 수 있는 입구가 있었으며 돌을 무덤 입구로 굴러 가는 동안 돌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만든 돌 통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돌은 치워졌지만 그 돌 통로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들여다본 후 주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몹시 울면서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러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도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

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 : 11-14, 17)

그날 밤 우리가 호텔 방의 배란다에서 밖을 내다볼 때 시온산이 밤하늘과 실루엣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왕의 탐 표시가 있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기가 구세주께서 기드론 시내로 내려가셔서 배반당하고 재판받고 마침내 사형당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드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나 아메리카의 새 예루살렘(우리 주변의 성경 학도들은 이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린 양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십 사만 사천과 더불어 시온산 위에 서시리라 하였도다

“또 그 음성은 많은 물 소리 같은 것이요, 큰 번개 소리 같으니, 산을 허물어뜨릴 것이요, 골짜기를 찾아볼 수 없게 하리라”(교성 133 : 18, 22)

“그때에 주께서 이 산 위에 발을 디디시리니 산은 돌로 갈라지며 땅은 흔들려 이리 저리 요동할 것이요, 여러 하늘도 진동하리라.

“또 주께서 음성을 발하시리니, 온 땅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라, 땅의 국민들이 애통할 것이요, 지금까지 웃던 자들이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리라.

“그때에 유대인이 나를 쳐다보며 말하기를 당신의 손발에 있는 상처는 무엇이니까? 하리니,

“그때에야 저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내가 저들에게 이같이 말할 것



갯새마네 동산(1976년 린 힐튼 탐험에서 제랄드 실버 촬영)

“때가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으니라”

(막 15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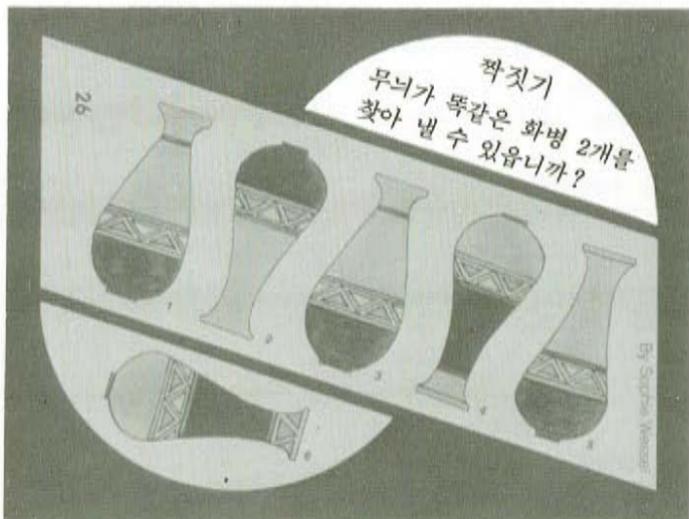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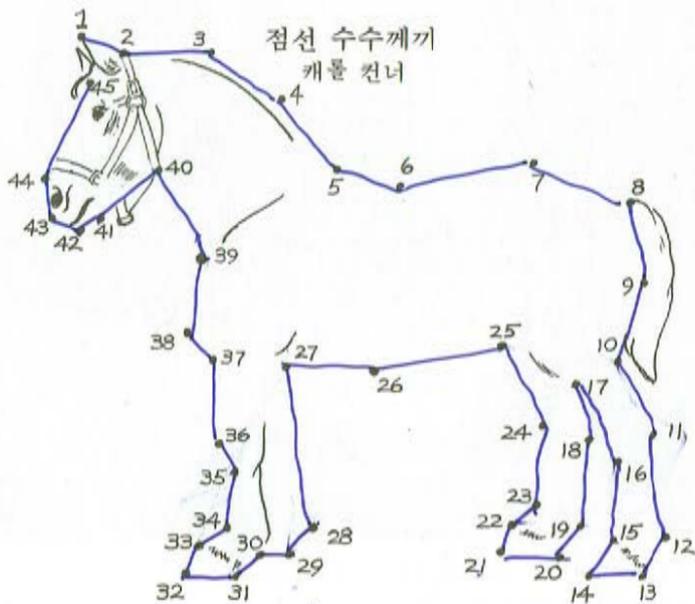
임이니, 이 상처는 내가 나의 친구 집에 있을 때에 입은 상처니, 나는 들리운 자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리라.”(교성 45 : 48-49, 51-52)

다음 날 아침 우리가 텔아비브를 향하여 또한 공항을 향하여 자파 도로를 따라 돌이 많은 경사진 길을 달리는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귀향하는 유대인들이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사 35 : 1) 나게 하기 위하여 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몇 가지 경험에서 우리 주님, 구세주의 사명에 관하여 두 번 다시 느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나는 특별한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자신에게 강한 인

상을 심어 주었는데 이 전에는 결코 이렇게 강한 인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모든 확신을 다하여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안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

심심풀이



소피 웨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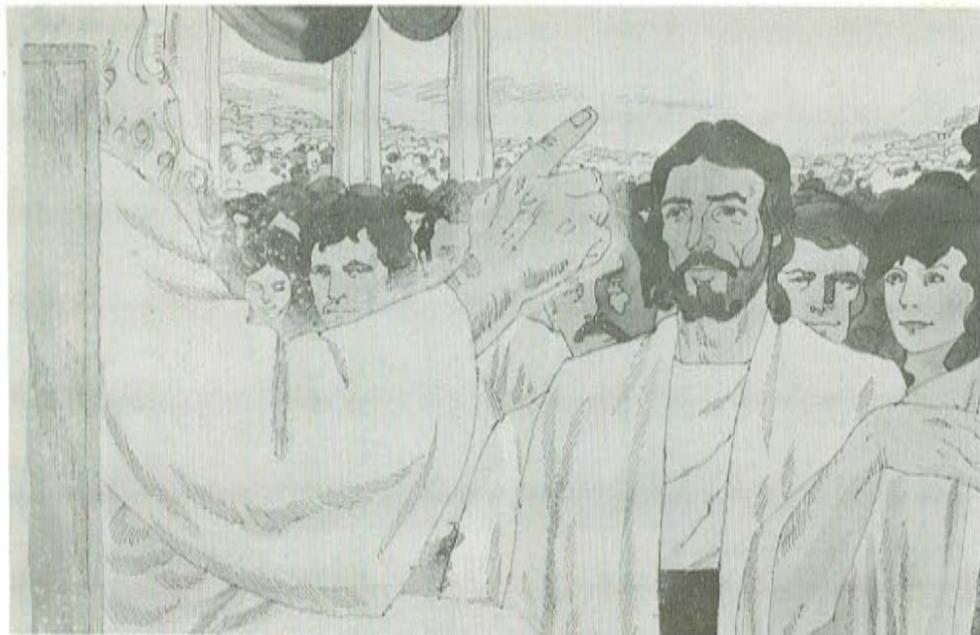
천국 회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하늘의 부모의 영의 자녀로서 그와 함께 매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처럼 생겼는데 각각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였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지 않고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 합당성을 입증하기를 원했고 육신을 입고 시험받을 때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상에 살게 될 많은 고귀하며 위대한 자들, 곧 장래의 예언자와 사도, 통치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말일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러 지상에 오게 될 많은 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마련하실 것이며, 우리들은 각각 육신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기쁘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 곧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더욱 발전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만 자유의지로 의롭지 못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을 선



택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실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에 태어난 후에는 하늘에서 살았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생활은 우리가 선을 택할 것인지, 악을 택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고서도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시험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의를 택하는 것이 때때로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가 지상에서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진보할 수 없고, 그분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 중 몇몇 사람은 악을 택하여

그분께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분을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못을 저지를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구세주, 곧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해주실 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영들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구세주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영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계의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형제, 자매인 우리들을 매우 사랑하셨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



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의 아들인 루시퍼가 “보소서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강제로 하늘 나라로 메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큰 은사인,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루시퍼는 인간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루시퍼가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될 뻔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

이 될 수도 없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몇몇은 루시퍼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전체 영들의 삼분의 일이 루시퍼를 따랐습니다.

루시퍼의 계획이 성공할 수 없고, 루시퍼는 욕심이 많고 반항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택하셔서 루시퍼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루시퍼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과 논쟁하며 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은 영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반항하며 불순종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면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지상에 태어날 수 없으며 육신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취해질 유일한 조치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랐던 많은 영들은 지상에서 특별한 일들을 하도록 성임을 받았읍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또한 각기 다른 재능을 부여받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서 3장 21~28절, 모세서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파올라 테파올로

오늘이 밀림의 재능 대회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클레어는 아주 슬픈 하마가 되었습니다. 클레어의 밀림 친구들은 모두 이 대회에 참가하겠지만 클레어는 그렇지 못합니다. 클레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춤도 못추고 노래도 못하며 과일로 요술을 부리거나 재주를 넘거나 북을 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단순하고 평범한 하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코코넛트”라고 클레어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그러자 클레어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

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거젤 부인(영양의 일종)의 무용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클레어는 “저에게 춤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거젤 부인이 “한번 해보자”고 대답했습니다.

클레어는 분홍빛 무용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는 회전과 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우아하게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클레어가 다시 땅에 내리자 밀림이 전부 흔들렸습니다. 원숭이와 바나나가 비오듯 나무에서 떨어졌으며 쥐는 하늘 높이 뛰어 올랐고 모두가 밀림이 진동하는 것에 대하여 두덜거렸습니다.

클레어와 재능 대회



클레어는 친구들을 성나게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춤추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노래로 유명한, 헤스터 코끼리를 만나러 가서 “노래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헤스터는 “물론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코끼리는 코를 높이 쳐들고 “자, 들어봐,”라고 말하고는 “우리집 강아지는……”하고 불었습니다. 그 코끼리는 매우 목소리가 고왔습니다. 그리고는 “자, 네 차례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우리집 하마는……”하고 힘껏 고함을 쳤습니다. 밀림에 사는 친구들이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로니 구

렁이가 잔뜩 겁을 먹고 나무의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헤스터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래서 클레어는 큰 칠판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칠판지는 정글에서 공중 곡예를 제일 잘했습니다. 클레어는 “제발 나무에서 나무로 뛰는 것을 가르쳐 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라고 빤보 칠판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해.” 그는 큰 나무 꼭대기까지 급히 올라가서 클레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클레어는 빤보를 따라 나무에

올라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나무가 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있던 큰 칙팬지들이 “나무 봐!”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무와 클레어와 빔보는 큰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큰 칙팬지들은 클레어가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클레어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클레어는 “나는 절대로 대회에 나갈 수 없어.”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윌터 무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 위에서 고리를 잡는 것을 가르쳐 줄게.”

클레어는 “그렇지만 나는 너처럼 뿔이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윌터는 “아, 깜빡 잊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랜디 비비가 “홀로 요술부리는 것을 가르쳐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아이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 두 개를 공중으로 던져 올렸습니다.

“아야!” 그 물이 랜디의 머리 꼭대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치료받으러 집에 갔습니다.

스마일리 하이애나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만남을 한 게 알지만 내가 대회에서 그것을 써야 해. 클레어야, 네게 가르쳐 줄 만담이 한 개 더 있으면 좋겠지만 안됐구나.”

타라 호랑이는 클레어에게 하모니카 부는 것을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클레어는 실수해서 그것을 활짝 삼켜 버렸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재능 대회 따위가 어디에 필요하담? 가서 수영이나 해야겠다.” 클레어는 그날 오후 종일 호수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피곤하면 물 속에서 오래오래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소리가

그를 깨웠습니다.

그 음성은 “클레어, 클레어”라고 불렀습니다.

클레어는 눈을 떴습니다. 밀림 친구들이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능 대회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젤 부인이 “클레어, 비가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내가?”라고 말하고는 물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헤스터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너만이 도와 줄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내가 뭘 할 수 있지?”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빔보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봐 줄 관객이 없어. 그래서 우승자를 뽑을 심판이 없어.”

클레어는 “아, 그것은 할 수 있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클레어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힘껏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합성을 지르며 응원했습니다. 휘파람을 불며 발을 뱅뱅 굴렀습니다. “잘한다, 재청이요”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더, 더,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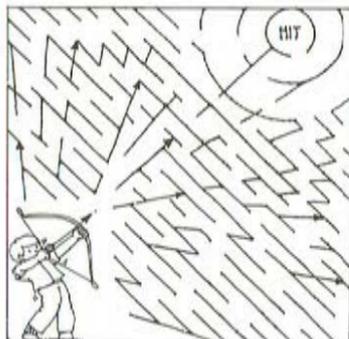
대회가 끝났을 때 클레어가 너무나 오래 박수쳤기 때문에 모두 10번씩 절을 했습니다. 클레어는 “너희들, 모두 정말 잘했어. 누가 우승인지 결정하지 못하겠어.”라고 말했습니다.

타라 호랑이가 “클레어 하마가 우승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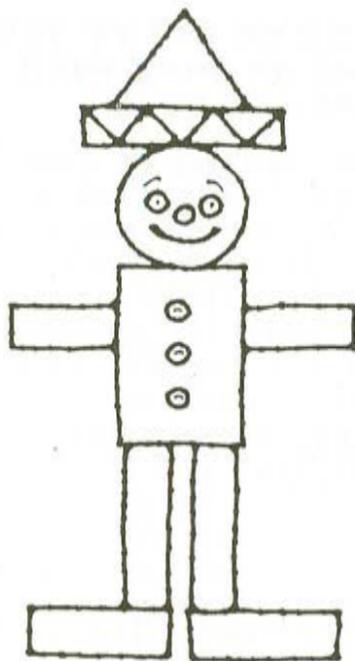
“너는 그 어느 재능 쇼보다도 더 훌륭한 관객이었어.”

모두가 클레어를 위해 손뼉을 쳤습니다. 클레어는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바구니의 과일을 상으로 받고 행복한 하마가 되어 집으로 갔습니다. *

화살 미로
로버타 엘 페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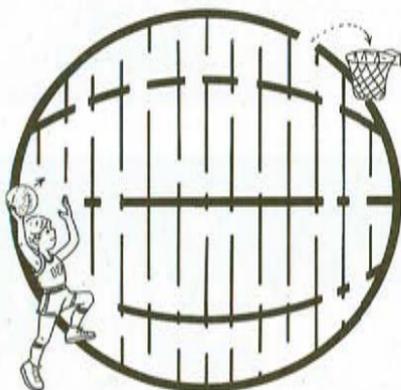


굴렁쇠 통과
선을 넘어서지 않고
그물에 공을
넣을 수 있습니까?
로버타 엘 페어물



똑똑한 그림
알린 로우즈

여러분은 그림에 관하여
얼마나 잘 압니까?
그림이 가치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위의 그림을 보십시오,
삼각형이 각각 2점이고
원이 3점 사각형이 4점이면
이 그림은 몇점일까요?



서 신학 연구원 제14회 졸업식 및 입학식



졸업식 광경

제14회 졸업식 및 입학식이 3월 10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신촌에 위치한 서 신학 연구원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졸업·입학식에서는 193명의 신입생이 등록을 마쳤으며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각 스테이크에서 참석한 많은 회원 중에서 영예의 우등상은 김 성지 자매(강서 스테이크 영등포 지부), 최 용인 자매(서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 그리고 이 창수 자매(북 스테이크 마포 와드)가 수상하였으며 학생 회장으로 수고한 김 석 형제(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가 공로상과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학생들을 위하여 김 차봉 서 신학 연구원장과 이 호남 장로의 축사와 환영사가 있었으며 수석 졸업한 김 성지 자매가 학생 대표로 간증을 해주었다.

졸업 및 입학식이 끝난 후에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신학 연구원 전통의 떡 파티가 베풀어졌다. *

물몬경 퀴즈 대회 (서울 서 신학 연구원)

신촌에 위치한 서울 서 신학 연구원에 서는 지난해에 이어 1983년도 후반기 물몬경 퀴즈 대회를 각 스테이크 별로 개최하였다. 2월 11일 강서 스테이크에서 시작된 이번 대회는 2월 18일에서 스테이크, 2월 28일에는 북 스테이크 그리고 2월 29일에는 청주 스테이크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다음은 각 스테이크의 퀴즈 대회 성적이며 괄호 안은 출전 대표 학생의 이름이다.

강서 스테이크: 1등-개봉 와드(유 은정, 장 혜옥), 공동 2등-신길 와드(윤 정현, 양 은미), 신정 지부(오 준호, 이 영미)

서 스테이크: 1등-사당 지부(이 인수, 오 수정), 2등-신림 와드(이 상두, 김 준만), 3등-상도 와드(박 태욱, 김 경희)
북 스테이크: 1등-불광 와드(윤 석준, 이 은미), 2등-홍제 지부(김 형태, 기 영란), 3등-녹번 와드(백 은영, 이 재권)

청주 스테이크: 1등-삼성 와드(조 동식, 전 봉선), 2등-상당 와드(장 동란, 김 혜정), 3등-예성 지부(배 철호, 최 미경) *

퀴즈 대회 광경

